

BUILDING A BETTER FUTURE TOGETHER

2022 포스코 기업시민보고서 하이라이트



BUILDING A BETTER FUTURE TOGETHER

2022 포스코 기업시민보고서 하이라이트

CONTENTS

I. Our Business

회사소개 01

II. Corporate Citizenship

트리플 모멘텀 1

기업시민 선포 5주년 03

Green with POSCO 04

Together with POSCO 05

Challenge with POSCO 06

Community with POSCO 07

Life with POSCO 08

트리플 모멘텀 2

포스코1%나눔재단 10주년 10

트리플 모멘텀 3

포스코봉사단 20주년 11

SPECIAL PAGE

함께 만든 기적, 재난 극복 135일의 이야기 12

III. ESG Performance

포스코 ESG 전략 14

탄소중립 달성 16

친환경소재 판매 18

환경영향 최소화 19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20

전략적 CSR 추진 21

안전보건 강화 22

인간존중 조직문화 구현 23

윤리/컴플라이언스 25

투명성 제고 26

IV. ESG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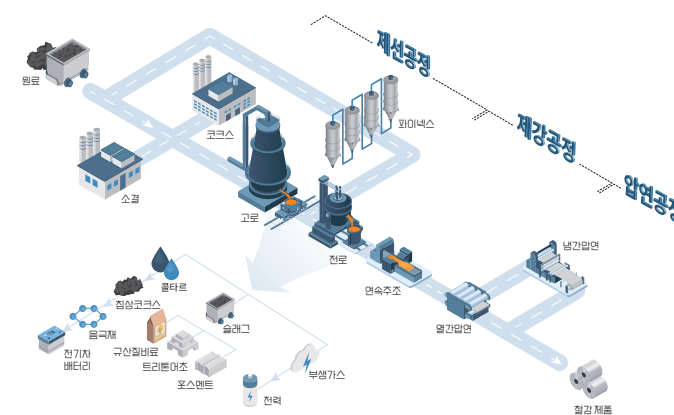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27

이니셔티브 참여 28

회사소개

포스코는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 철강재를 생산하는 종합제철회사입니다. 1968년 창립 이래 포스코는 조강 생산량(43백만 톤) 기준으로 세계 6위 규모의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포스코는 국내에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13개국에 13개 생산법인과 26개 가공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철강 생산 프로세스와 라이프사이클



포스코 글로벌 사업장



World Steel Dynamics 선정,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 13년 연속 1위

포스코는 꾸준한 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초일류 철강사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7월에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서 신(新) 철기시대를 선도하는 First Mover이자,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영속기업이 되기 위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FANTASTEEL
홍보영상

비전 슬로건

Better World with Green Steel

비전 선언문

혁신기술로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며
철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해 지속성장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목표
(합산 기준)

글로벌 조강능력

'22년 43 ▶ '30년 52 백만 톤

매출액

'22년 72 ▶ '30년 100 조 원

영업이익률

'22년 대비 '30년
2배 증가

포스코는 2030년 글로벌 조강 능력 52백만 톤, 합산 매출액 100조 원, 수익성 Global No.1 철강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실현을 기본으로 글로벌 철강업계의 ESG 경영 롤모델이 되고, 직원들이 즐겁고 싶어 하는 행복한 회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회사가 되어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 가는 미래경영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2 기업시민보고서 하이라이트를 통해 비전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포스코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합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포스코

기업시민이란 기업에 시민이라는 인격을 부여한 개념으로 현대사회 시민처럼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포스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인류의 번영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추구해 왔습니다.

2023년은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5주년, 포스코1%나눔재단 창립 10주년, 포스코 재능봉사단 창단 20주년을 동시에 맞이하는 트리플 모멘텀의 해입니다.

그동안 포스코가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동력 삼아 ESG 경영 이상의 가치인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며 지속성장하겠습니다.

기업시민, Beyond ESG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5주년의 성과를 기업시민 5대 브랜드 활동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기업시민 5대 브랜드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포스코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정받으며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시민 5대 브랜드 활동으로 ‘함께하고 싶은 회사’ 구현

5대 브랜드 및 목표



주요테마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추진

포스코 벤처플랫폼 구축을 통한 신성장사업 발굴기반 마련

2050 탄소중립 달성 선언 및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롤 모델 제시

안전·보건 및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지원

Green with POSCO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업무와 일상에서 저탄소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술혁신 노력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 연대와 협업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문제 해결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다숲 가꾸기



포스코는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슬래그로 ‘트리톤어초(Triton)’를 만들어 바다 사막화 지역에 바다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트리톤어초는 칼슘과 철 등 해양생태계에 유용한 미네랄 함량이 높아 해조류 생장 촉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트리톤어초 설치
7천여 개 설치

바다숲 조성지역
30여 곳

울릉 바다숲 생물다양성 증가
10 ▶ 19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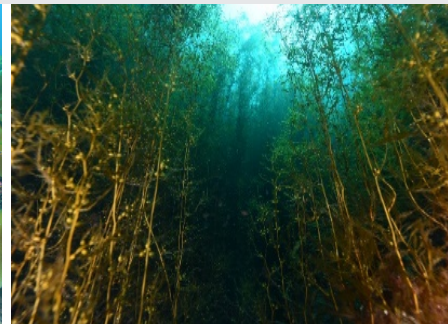
울릉 트리톤 바다숲 변화 모습



2020년 10월



2022년 6월



2023년 3월

클린오션 봉사단



클린오션봉사단은 지역사회 바다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직원 봉사단으로 15년째 수중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가사리, 성게 등 해적생물 퇴치에도 앞장서고 있어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량
2,060톤

참여인원
19,368명

봉사 참여시간
77,472시간

폐각 자원화



폐각은 장기 방치 시 약취 및 식수오염 등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합니다. 포스코는 버려지던 굴 껍데기를 수거, 세척, 파쇄해 제철 부원료로 재활용하여 지역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석회석 대체재 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에도 기여합니다.

국내 굴 폐각 발생량
약 **35**만 톤/년

자원화 가능한 폐각량
최대 **30**만 톤/년

탄소 감축효과
최대 **13**만 톤/년

Together with POSCO

비즈니스 파트너사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업시민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여, 높아진 사회적 기대수준과 변화된 경영환경에서 더욱 강건한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 운영



참여기업에게 과제 추진을 통해 발생한 재무성과의 50%를 현금으로 보상하고 최대 5년의 장기공급 계약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술개발과 매출 확대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참여기업
2,254개사

수행과제
5,418건

성과보상금액
총 **7,326**억 원

동반성장지원단 컨설팅



동반성장지원단은 포스코의 다양한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전담조직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충과 니즈에 대해 전문가적 역량과 노하우가 연계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60개사

과제 발굴 및 지원
189건

스마트화 역량강화



포스코는 고유의 혁신 방법론 ‘QSS(Quick Six Sigma)’를 중소기업에 전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작업환경 및 공정 개선, 스마트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QSS 제조혁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
2,042건

출연금액
354억 원



비즈니스 파트너와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

Challenge with POSCO

포스코는 벤처밸리 조성과 벤처펀드 투자로 구성되는 ‘포스코 벤처플랫폼’ 구축을 통해 100년 기업을 향한 신성장 사업 발굴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벤처플랫폼은 유망한 벤처기업들을 발굴·육성·투자하여 포스코의 혁신과 지속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IMP)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는 포스코 주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유망 스타트업의 조기 발굴 및 성장 지원,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한 대기업 최초의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보육

142개사

투자금

232억 원

체인지업 그라운드

CHANGeUP
GROUND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공간입니다. 포항의 국내 최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 전 주기적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입주사

112개사

입주사 기업가치

총 1조 4천억 원

고용 인원

1,125명

사내 벤처 프로그램 ‘포벤처스’



포벤처스는 미래 성장사업을 발굴하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내 벤처제도입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합니다.

창업 성공

15개사

기업가치

571억 원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체인지업 그라운드(CHANGeUP GROUND)

Community with POSCO

포스코는 창립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고 포스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여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 환호공원 스페이스 워크(Space Walk)

지역 명소화를 통한 상생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스페이스 워크는 포스코가 기획·제작·설치하여 포항시에 기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Park 1538은 포스코 홍보관, 역사박물관, 수변공원, 명예의 전당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포스코의 과거-현재-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포항 스페이스 워크 관람객

124만 명

Park1538 관람객

6만여 명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기업시민콘서트는 임직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포스코의 대표 문화행사로 다양한 테마의 공연과 강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문명시민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콘서트 개최

53회, 5만 9천여 명 관람

문명시민교육원 강연

200회, 3천여 명 참여

Life with POSCO

포스코는 미래세대가 기업시민형 기업이 정신을 보유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취업·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직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지원 프로그램



포스코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시민과 ESG 경영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유드림은 취업 아카데미, 청년 AI·Big Data 아카데미,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창업을 지원합니다.

기업시민과 ESG 경영 교과목 참여 대학
('23.6월 누적 기준)

23개교 521명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포유드림'

2,482명 취·창업 성공

SMART SAFETY 안전 솔루션



밀폐공간의 유해가스 존재 여부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 세이프티 볼'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여건이 취약한 용역사 직원들을 대상을 안전교육 및 보건활동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버스' 교육 참여자

1만 5천여 명

스마트 세이프티 볼

700여 대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



스마트 세이프티 볼

저출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차원의 롤 모델 제시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정부뿐 아니라 기업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2018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이후부터 기업차원의 저출산 해법 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내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 미래세대 인구교육 사업 등을 필두로 매년 임직원들의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 업그레이드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학(民官學) 협력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인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족형성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인구교육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출산·육아지원제도는 2023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에도 소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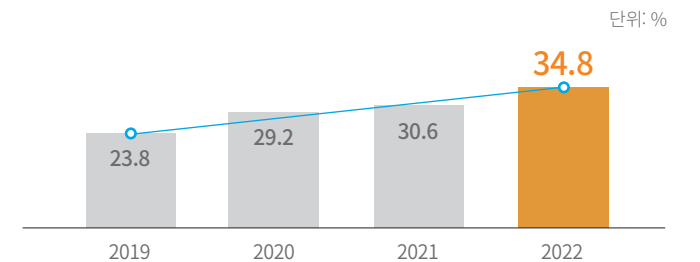
가족·출산친화 제도



가족·출산친화 사내문화 조성

포스코는 임직원들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가족·출산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직무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확대 적용하여 임신기, 난임치료, 배우자 출산 지원 등 출산을 준비하는 직원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형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3월부터 기존 직장 어린이집 외에 포스코의 사업장이 있는 포항과 광양에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직원 자녀들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내 가족·출산친화 제도의 효과성을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와 2022년에 공동연구하였고, 포스코의 가족·출산친화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직원의 직무만족도와 업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대내외에 발표하여 주목받았습니다.

출산·육아지원제도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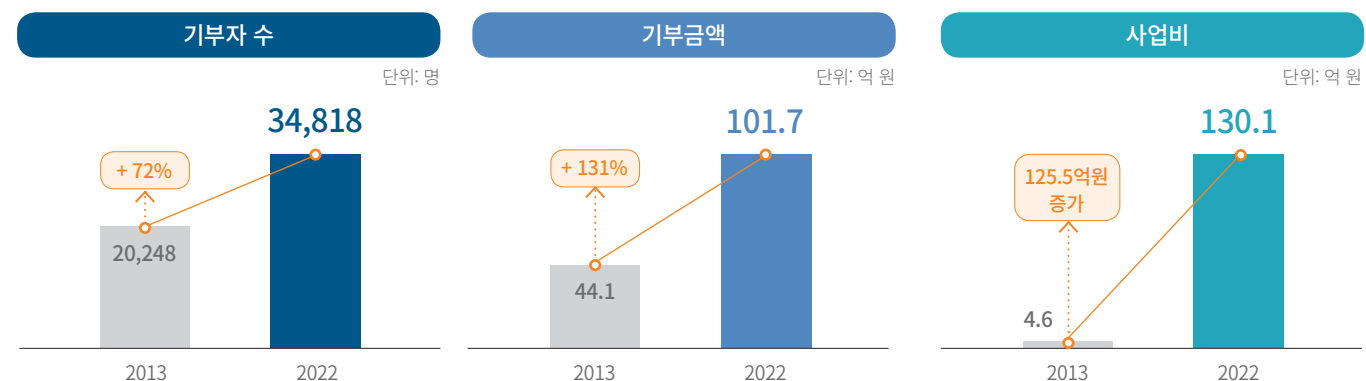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의 출산·육아지원제도 이용 비율

포스코1%나눔재단 10주년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3년 11월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포스코그룹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나눔재단은 미래세대와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43건의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시그니처 사업으로 육성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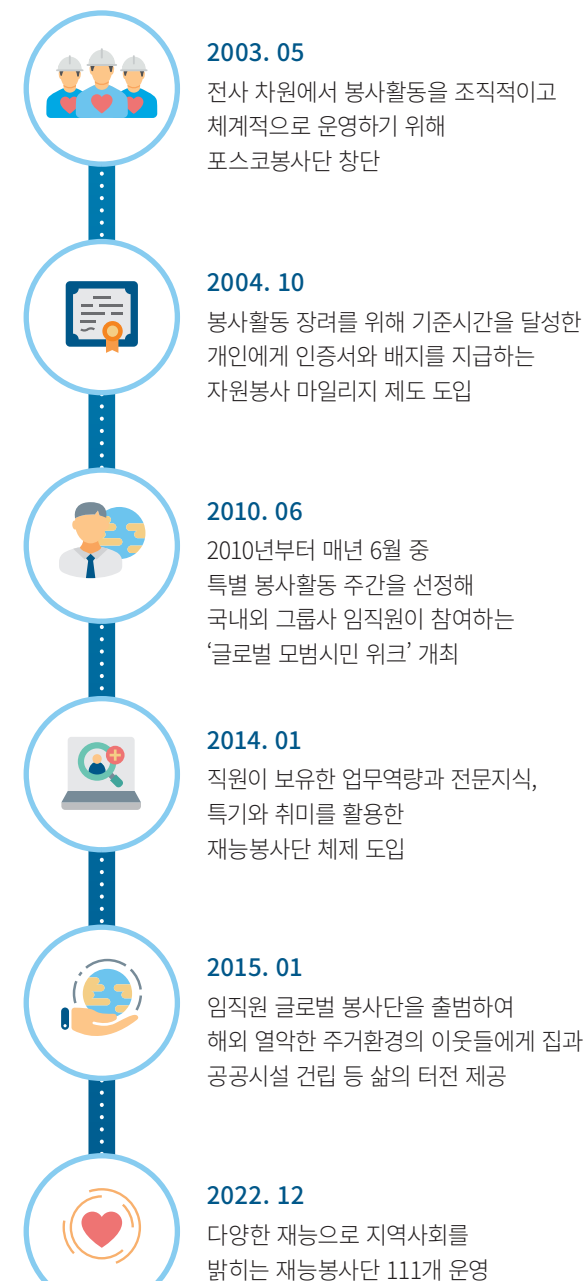
지난 10년간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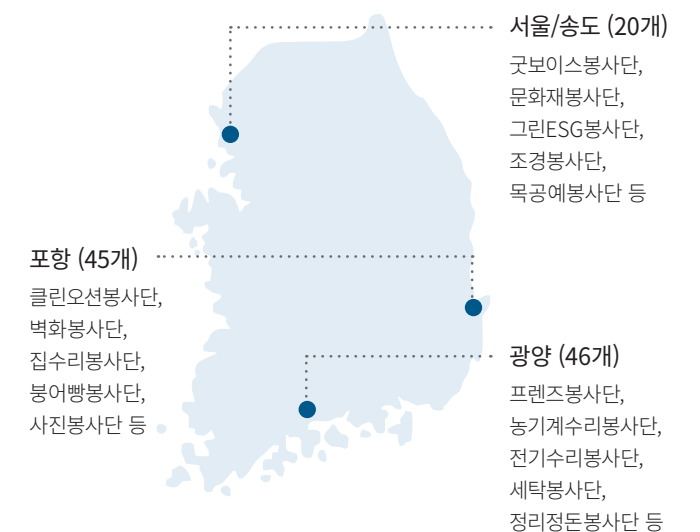
포스코봉사단 20주년

포스코는 2003년에 포스코봉사단을 창단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개인의 업무 특성과 특기를 활용한 재능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특별 봉사 주간인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봉사단이 걸어온 길



지역별 주요 재능봉사단



자원봉사 참여 시간

346,866시간



자원봉사 참여자 수

13,096명





태풍 힌남노 피해 당시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

•SPECIAL PAGE•

함께 만든 기적, 재난 극복 135일의 이야기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가 새벽부터 포항에 쏟아 내린 비는 하루 동안 무려 541mm를 기록했습니다. 5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포항 지역의 냉천은 순식간에 범람하여 도로 곳곳이 끊기거나 통제되었고, 포항지역에서만 10명의 사망자와 2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껏 철저한 준비로 많은 태풍을 견뎌냈던 포항제철소였고 이번 힌남노를 대비하기 위해 전공장 조업 중단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세웠지만, 제철소 인근에서 평소 메마른 상태를 유지했던 냉천이 만조 시기에 맞추어 범람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냉천의 범람으로 약 620만 톤의 토사와 하천수가 유입되었고, 여의도 면적의 3배 넓이에 달하는 포항제철소가 빗물에 의해 30분 만에 1.5m 높이까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공장 밖 도로 전체가 잠기다 보니 긴급 투입 되는 소방차가 떠내려가듯 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 내부에 발생한 침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열연/냉연/스테인리스 등 설비라인의 대부분이 토사와 하천수에 의해 절반 이상 물에 잠겼고, 기계/전기설비·철강제품·자재 등에 막대한 규모의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피트에 물과 토사가 가득 차고도 지상이 물에 잠겼고, 힘차게 돌아가야 할 설비들은 물살에 쓸려 나와 엇가락처럼 휘어지고 구겨졌습니다. 포항제철소로 공급되는 모든 전력이 끊겨 공장은 멈췄으나, 휴풍에 들어간 고로 3기는 5일 안에 되살리지 못하면 냉입*에 의해 고로 복구가 최대 5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철소를 다시 세우는 것이 빠르지 않겠냐는 우려와 함께, 조업 정상화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 고로 내부의 쇳물 온도가 낮아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상태

People with POSCO

사상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포스코는 2022년 9월 7일에 즉시 전사 대응 TF(Task Force)를 조직했고, 포스코 대표이사 주재로 긴급 복구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일터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현장에 모여들었고,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복구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복구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비단 포스코의 임직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임직원과 침수 소식에 놀란 포스코의 퇴직 선배들이 앞다투어 작업 현장으로 달려와 수해 복구를 도왔고, 거리상으로 오기 어려운 포스코 해외법인에서는 생산/제품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정 해소를 도왔습니다.

Society with POSCO

포스코가 빠른 기간 내에 복구작업을 완료한 데에는 경상북도, 포항시, 소방청, 해병대 및 인근 마을 공동체 등 민·관·군의 지원이 큰 몫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차량, 펌프, 준설차 등 장비를 지원하였고 소방청, 소방기관 등 행정기관과 해병대에서는 복구작업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결연을 한 자매마을에서는 마스크, 간식 등 각종 위문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직원 수해복구 작업 현장

Business with POSCO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철강사들은 서로에게 치열한 경쟁상대이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서로 협업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인도 철강회사 JSW 스틸, 일본제철,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포항제철소의 정상조업을 위해 설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객사와 공급사의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에서는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LG전자에서는 전문 전기수리 엔지니어를 급파하여 정비작업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조선내화, 유니코 정밀화학, 한승케미칼 등 원료 공급사와 PHP 공급사들 또한 복구작업을 위한 장비와 자재,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Building a Better Future Together!

냉천 범람 피해 복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연인원 14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작업 수행에도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며 포스코의 안전관리 능력을 증명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 침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일일 안전공정회의를 운영하고 시운전 절차 등 27건의 안전 지침과 가이드를 정립하여 배포하는 등 미경험 복구작업 및 초도인력 대규모 투입에 대한 안전 대응 체계를 조기에 확립 및 시행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빠르게 보다는 안전하게’, ‘어제보다 오늘 더 안전하게’라는 안전 슬로건을 공유하였습니다. 중대재해 Zero 달성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포스코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모두 공감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포스코는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7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135일 만에 제철소를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수해 복구 과정은 대외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가 가진 불굴의 경쟁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이 서로 의지하며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냉천 범람에 따른 수해복구를 계기로 향후 재발 가능한 제철소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전사 차원의 자연재난 대응체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그 시작으로 지난 2023년 5월에 수해복구 백서 발간을 통해 전 임직원의 위기 극복 모습을 기록하고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철소 바깥 지역사회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포항 냉천의 제방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포항제철소의 침수 피해 복구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임직원, 이해관계자,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침수 피해 복구 완료 후 2열연공장에서 생산한 첫 제품



▶ 하나된 마음, 135일의 기적



타 철강사와의 협업, 현대제철이 제공한 용선 운반차(TLC)



현대중공업의 소방펌프 지원



고려제강의 푸드트럭 지원, 최고 posco!

포스코 ESG 전략

포스코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친환경 리더십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를 조성하며, 경영체계 선진화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친환경 미래 소재의 의미를 담은 GREEN을 키워드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포괄하는 5대 ESG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G

Green Competency

저탄소 공정,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인류와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R

Responsible Value Chain

포스코와 거래 중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ESG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밸류체인 관점에서 지원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겠습니다.

E

Employee Happiness

안전한 작업환경과 인권/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여 임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E

Ethics & Integrity

모든 비즈니스 의사결정은 철저한 윤리의식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윤리/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N

New Governance for Real value

경영체계 선진화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ESG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포스코의 리얼 밸류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이중 중요성 평가

포스코는 매년 중요성 평가를 통해 철강업이 직면할 리스크와 기회의 관점에서 핵심 이슈를 도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요성 평가는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인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적용하였습니다.

Financial Impact (재무적 영향도)

- 국제표준 검토
SASB, TCFD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 분석
MSCI, KCGS 등 ESG 평가기관 지표 분석
- 법·규제 검토
포스코가 준수하여야 하는 ESG 관련 규제사항
(환경정책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파악
- 임직원 설문조사

1,868명

Environmental-Social Impact (환경·사회적 영향도)

- 국제표준 검토
GRI, ISO 26000, UN SDGs, UNGC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 분석
- 미디어 이슈 분석
- 벤치마킹 분석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640건 **8개사** **87명**

중요 이슈 및 9대 중점 추진영역

포스코는 이중 중요성 평가에 따른 13개의 중요 이슈를 포함한 회사의 ESG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슈별 유의미한 ESG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GREEN 프레임워크의 9대 중점 추진영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도	중요 이슈	영향도		이해관계자			GREEN 프레임워크 & 9대 중점 추진영역
		환경·사회적	재무적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1	기후변화 대응	●	●	●	●	●	① 탄소중립 달성
2	사업장 안전 리스크 관리	●	●	●	●	●	② 친환경소재 판매
3	대기환경 개선	●	●	●	●	●	③ 환경영향 최소화
4	에너지효율 제고	●	●	●	●	●	④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5	윤리경영 준수	●	●	●	●	●	⑤ 전략적 CSR 추진
6	환경 리스크 관리	●	●	●	●	●	⑥ 안전보건 강화
7	유해 화학물질 관리	●	●	●	●	●	⑦ 인간존중 조직문화 구현
8	상생의 노사문화	●	●	●	●	●	⑧ 윤리/컴플라이언스
9	인권보호 강화	●	●	●	●	●	⑨ 투명성 제고
10	공급망 ESG 관리	●	●	●	●	●	
11	이해관계자 소통	●	●	●	●	●	
12	협력사 동반성장	●	●	●	●	●	
13	지역사회 참여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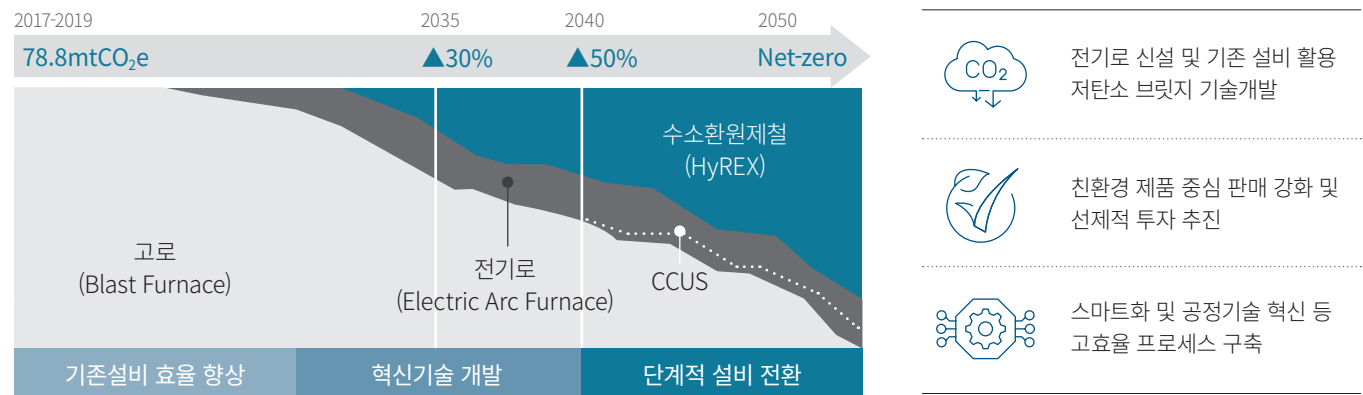
● High Impact ● Medium Impact ● Low Impact

탄소중립 달성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원료-투자-에너지-기술개발 등 중장기 종합 전략이 포함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평균 탄소 배출량인 78.8백만 톤 대비 2035년에는 30%, 2040년에는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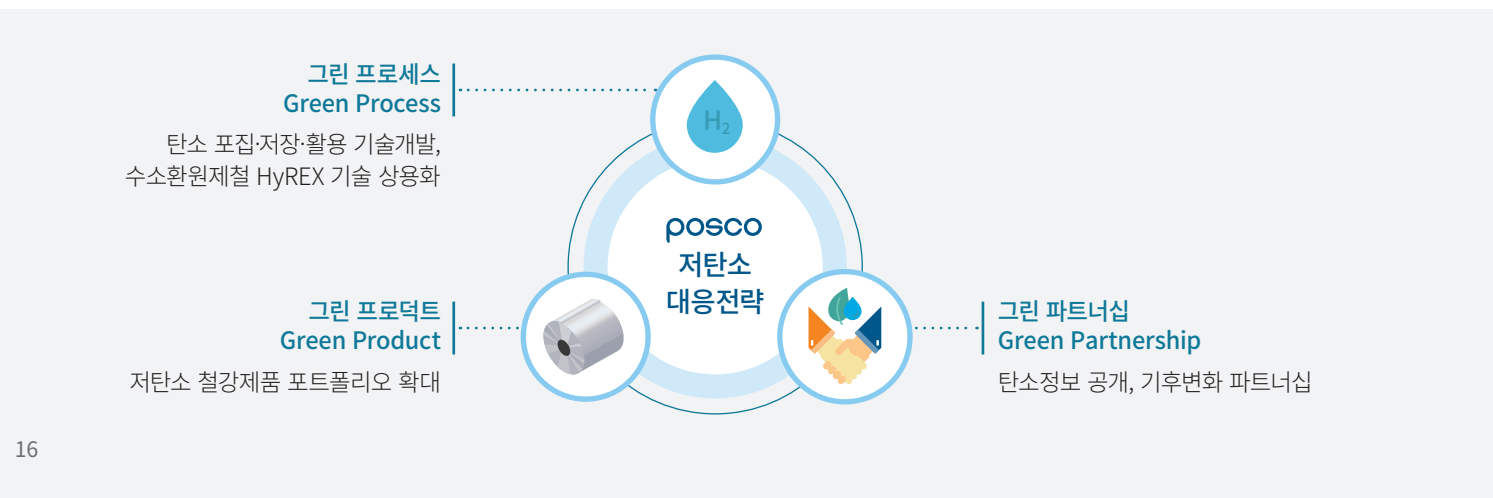
탄소중립 로드맵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기본 로드맵’을 수립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제철 프로세스 전환 및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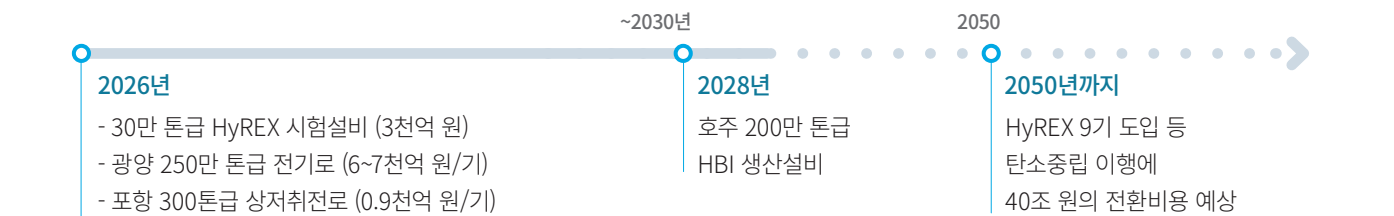
포스코는 저탄소 대응전략의 3대 핵심영역으로 ‘Green Process, Green Product, Green Partnership’을 수립해 발 빠르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Green Process는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활동으로 철강 및 소재 생산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투자 및 기술 개발, 철 스크랩 활용 증대와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적용,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reen Product는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저탄소 철강재, 신소재 및 부산물을 의미하며, 포스코는 Green Product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 고객사, 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투명한 탄소정보 공개, 국내외 탄소정책 및 기술개발 협력 등 기존 Green Partnership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탄소 감축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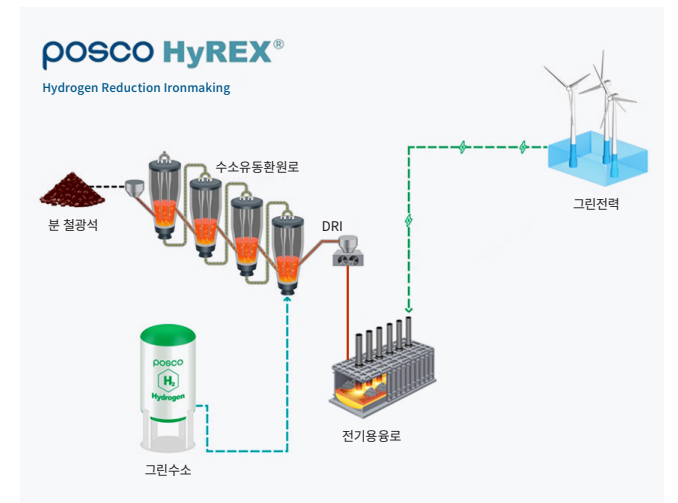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설비 효율 향상과 함께 현재 가동 중인 설비를 활용한 저탄소 연·원료 사용, 저 HMR(低 Hot Metal Ratio) 조업 기술을 개발하고 중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기술개발 전까지 전기로 도입 및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실현 가능성이 큰 브릿지 기술을 도입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인 ‘HyREX(Hydrogen Reduction)’을 개발해 철강 공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단기 탄소중립 이행 투자계획*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 ‘HyREX’

수소환원제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H₂)를 사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철광석과 화학반응하면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하지만, 수소는 물(H₂O)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강 제조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의 HyREX는 석탄 대신 100% 수소로 가루 상태의 철광석을 환원하여 직접환원철(DRI, Direct Reduced Iron)을 생산하고 이를 전기로에서 녹여 쇳물을 제조합니다. HyREX의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와 전력 역시 점진적으로 CO₂ 배출 없이 생산된 그린수소와 그린전력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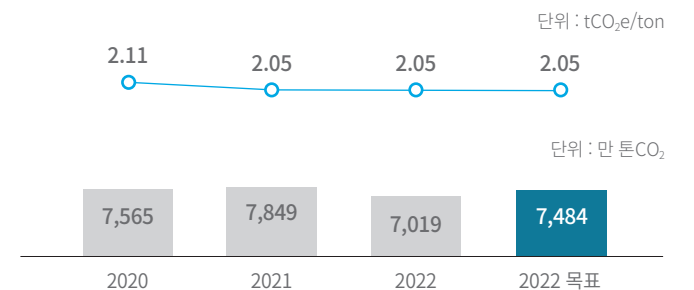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량

2022년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기준 연도(‘17~’19년 평균) 배출량인 78.8백만 톤 대비 10.9% 감소한 70.2백만 톤입니다. 포항제철소 냉천 범람으로 인해 조강 생산량은 기준연도 37.6백만 톤 대비 9.0% 감소한 34.2백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저 HMR 조업 기술을 통한 스크랩 사용 증대, 펠렛 등 고가의 저탄소 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임으로써 2022년 온실가스 집약도는 기준연도 2.09tCO₂e/ton에서 2.05 tCO₂e/ton으로 개선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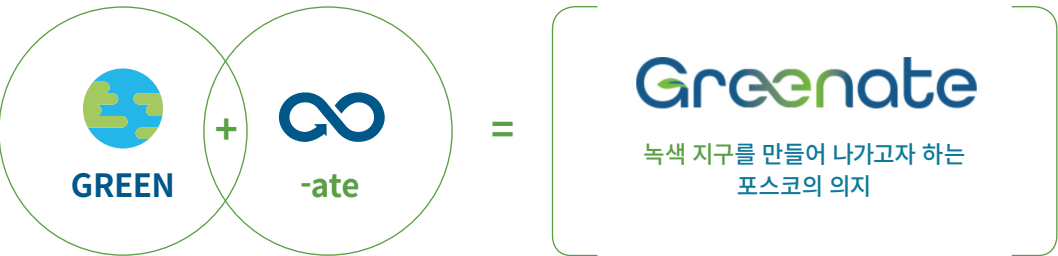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집약도는 정부 배출량 인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집약도(Scope1 & 2)*



친환경소재 판매

포스코는 기술과 제품 혁신 그리고 탄소 감축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 대표 탄소중립 실천 선도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닛은 그린(Green)이 되게 하다(-ate)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녹색 지구(Green Planet)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포스코의 탄소중립 마스터 브랜드입니다.



그리닛을 구성하는 3개의 서브 브랜드

포스코의 탄소중립 마스터 브랜드 그리닛은 STEEL, TECH&PROCESS, INFRA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탄소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저탄소 철강 기술과 공정, 특히 미래 수소환원제철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닛의 하위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탄소 철강 제품

Footprint 최소화형
철강 생산 전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을 최소화한 제품

Handprint 향상형
철강의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서 탄소발자국을 저감한 제품

환경Stress 저감형
철강 생산·사용 과정에서 탄소 외 유해물질 배출을 저감한 제품

저탄소 철강 기술·공정

최신 전기로 도입,
고로-전로 기반 저탄소 브릿지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공정,
CCUS 등

* 합수소가스 취입, 철원류 직접 사용,
펠렛 사용 확대 등

Greenate 완성을 위한
수소 공급 등 제반 인프라

그레이수소 프로젝트
블루수소 프로젝트
친환경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파트너십 플랫폼

·
·
·

Greenate Certified Steel

포스코는 저탄소 생산공정과 저탄소 철원 사용 등을 통해 감축한 탄소 배출량을 배분 받은 탄소감축량 배분형(Mass Balance) 제품인 Greenate certified steel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LG전자의 건조기 부품의 소재로 사용되며 이마트 연수점 매장의 스마트팜 하우스 붓스에도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환경영향 최소화

포스코는 제철소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SO 14001에 기반하여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지침 수립 및 관리, 내부 심사, 교육 등의 환경경영 프로세스를 통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 기준보다 강화된 내부 목표를 수립하고, 친환경 생산공정과 최적의 방지기술을 적용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대기
대기오염방지설비 신설, 야드밀폐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핵심 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및 세부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장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용수관리 최적화 및 재활용 확대 등으로 물부족 리스크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 주변 해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류수 수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화학물질 취급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입고 단계부터 사용 단계까지의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물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순환경제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철소 전체 부산물 발생량의 약 80%는 슬래그이며, 이는 시멘트, 비료 등의 원료로 활용됩니다. 미활용되는 폐기물의 매립, 소각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물 자원화율'을 98%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포스코는 해양생태계 복원과 부산물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바다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슬래그로 '트리톤어초(Triton)'를 만들어 바다 사막화 지역에 적용하여 바다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에는 국제 기업시민 컨퍼런스 ICC에서 환경혁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포스코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글로벌 지속가능 구매 선도기업으로 도약’이라는 구매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환경친화적인 철강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 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공급망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스코는 동반성장 8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급사의 문제 해결을 돕고 상생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환경, 안전 등 포괄적인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급망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쟁 지역이나 고위험 지역의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광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4대 전략

ESG 구매 방침

포스코는 친환경적 운영 프로세스를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급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구매를 선도한다.

공정·투명·윤리경영의 실천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 구매정보 공개
- 공정거래 준수

ESG 구매 실현

- 친환경 구매의 확대
- 책임광물 관리 강화
- 사회적 친화기업 우대
- GEM 매칭펀드

공급망 역량 강화

- 공급망 ESG 실사
- 기술협력 / 경영안정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복리후생 지원

구매 경쟁력 강화

- 최적가치 구매 실행
- 물품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구매
- 지속적인 우수 공급사 발굴

동반성장 8대 프로그램

포스코는 공급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경영안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8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성과공유제	1·2차 대금직불체계
스마트화 역량강화	철강 ESG 상생펀드
기업시민 프렌즈	동반성장지원단
포유드림 잡매칭	벤처지원



책임광물

포스코는 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분쟁단체 자금 유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국제 RMI에 가입 및 OECD 실사 가이드 기반 책임광물 공급망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은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입니다. 국제사회는 주요 광물이 채굴되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업의 책임광물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보고서

전략적 CSR 추진

포스코는 창립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며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회사가 지닌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대 전략 및 중점 영역

전략방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니즈를 발굴하고,
해결 우선순위를 선정

비즈니스 전문성과 업(業)특성을
연계한 사회공헌 솔루션 실행으로
사회적 영향력 제고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신뢰의 파트너십 구축

중점영역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 지역사회 211개 자매마을과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 포항과 광양지역에 무료급식소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포항 한호공원 스페이스 워크와 복합문화공간 Park 1538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 취약계층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 대학생 봉사단 비운드를 창단하여 공헌활동에 열정과 재능을 갖춘 청년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청암재단과 포스코교육재단을 설립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를 설립 하였습니다.

임직원 참여

자발적 공헌활동 참여문화 조성

- 전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봉사활동 주간인 ‘글로벌 모범시민 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원이 자신의 급여에서 1%를 기부하고 회사에서 매칭 그랜트를 출연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강화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포스코는 강건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기반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최고의 안전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안전보건 법규 준수를 기본으로 설비 및 기계·기구의 설치, 운전·보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9요소

포스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글로벌 선진 안전체계로 도약하기 위해 포스코 안전보건 관리체계 9요소를 정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의지 및 목표 매 회의 시 안전보건경영방침 낭독, 안전 당부 서한 전달	조직·인력 및 예산 현장 관리감독자, 안전파트장 등 안전관리 인력 배치, 안전예산 선실행·후정산	양방향 의사소통 안전경영위원회, 노사합동커미티 운영
평가 및 개선 매월 운영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성과 분석	관계수급사 관리 직영·관계사 통합 안전보건 플랫폼 개발	법령 및 표준절차 준수 Rule & Process 준수 문화 정착
사고 조사 및 관리 사고 발생 시 표지판 설치, 안전사고정보 앱 개발	교육·훈련 찾아가는 안전버스 교육, 안전쉼터 제공	유해위험요인 관리 안전신문고, 유해위험 드러내기 경진대회 운영

Smart Safety 안전 솔루션

포스코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화된 모바일 로봇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철소 내부에 케이블카처럼 줄을 타고 작업 공간의 위험 요소와 각종 기기들의 고장 여부를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스마트 와이어볼(Smart WireBall)’을 설치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작업 환경에 투입할 수 있는 제철소 설비 점검용 ‘4족 보행 로봇’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로봇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제철소 설비 점검용
4족 보행 로봇

설비 무인감시 Smart WireBall

인간존중 조직문화 구현

포스코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인간존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UN글로벌컴팩트 10대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포스코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와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포스코는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하며 자유, 안전,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엄성 확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규범의 실천지침으로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명시하고 인권경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업무지침

포스코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회사의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과 포스코 윤리규범에 의거해 포스코 인권보호 가이드라인(현 포스코 인권보호 업무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비윤리신고센터

포스코는 윤리상담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에 대해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비윤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인권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인간존중에 위배되는 사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는 피해 직원이 외부 전문기관(회사 지정 노무법인)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하여 상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충처리 프로세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인권실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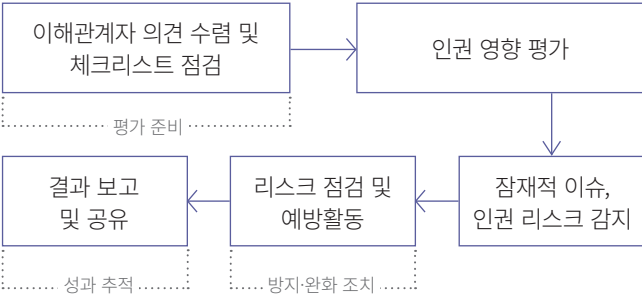
포스코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방지 및 완화하고 필요시 인권실사를 실시합니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발견한 문제점에 대응하며, 이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간존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 입장

- 포스코가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한다.
- 현지국의 상반되는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다룬다.

인권서약 및 교육

포스코는 매년 1월 전 직원이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윤리규범 준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특별 성희롱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존중 조직문화 구현

인재 육성

포스코는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환경 변화에 맞춰 핵심 기술 전수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교육 71개 과정과 e-러닝 4,046개 과정을 포함한 총 4,117개의 직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칼라인증제

포스코는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발맞춰 ‘IT 신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창출로 사회에 기여하는 직원’을 New Collar 인재로 정의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New Collar Level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ew Collar Level 인증 제도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수준을 4단계로 나눠 수준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레벨을 획득한 직원에게 승진 가점, 유학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New Collar Level	역량수준	교육 프로그램
Level 4 Master	• Smart 과제 독자적 수행, 타분야 컨설팅 가능	• AI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Level 3 Expert	•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Smart 과제 수행 가능	• 포스텍 AI 전문가 or AI 석사학위 과정
Level 2 Semi-Expert	• Data 분석 Tool을 활용하여 업무 개선 가능	• 온라인 40hr or 집합교육 5일 과정
Level 1 Beginner	•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방법 이해	• 온라인 24hr or 집합교육 3일 과정

러닝 플랫폼

포스코는 임직원들의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PC, 휴대폰 등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는 ‘러닝 플랫폼’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러닝 플랫폼은 다양한 직무 분야별 e-러닝 학습 콘텐츠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e-book, 오디오북, 현장 실감형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멀티학습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여 학습자가 이용하는 교육 콘텐츠 및 직무를 분석하여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포스코는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마음 건강과 심리적 안전감을 위해 임직원과 가족,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위한 ‘마음챙김센터 休(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상담이 어려운 임직원들을 위해 보다 편리하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앱, 이메일, 전화를 통한 비대면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센터 休(휴)

윤리/컴플라이언스



포스코의 윤리경영 철학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實質), 실행(實行), 실리(實利)에 입각하여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기업윤리’라는 가치 아래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스코는 윤리경영을 포스코의 기업문화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비윤리 행위 예방 및 인간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프로세스

포스코는 윤리경영을 모든 임직원의 일상과 업무에서 실천하기 위해 다음의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비윤리 감지 및 예방활동으로 윤리실천을 생활화합니다.

① 윤리 정책 및 프로세스 운영	② 비윤리 리스크 예방활동	③ 비윤리 진단 및 조치	④ 변화관리
윤리 규범/실천지침 제정 및 개정, 거버넌스 및 전략 수립	기업시민헌장을 통한 전 임직원 윤리서약,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 실시, 윤리경영 캠페인, 협력사 윤리경영 지원활동	임원/직책자 윤리세션 및 상시 설문조사를 통해 감지된 비윤리, 인간존중 위반 리스크 관리, 비윤리 신고 접수건 감사 및 후속 조치	감사를 통한 비윤리 및 낭비 개선, 부서 맞춤형 윤리 컨설팅, 협력사 윤리경영 지원활동

신고센터 운영

포스코는 임직원의 비윤리 및 인간존중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며, 임직원이 청탁을 받을 시 청탁 받은 내용은 반드시 ‘클린 포스코 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받은 명절 선물은 선물반송센터를 통해 반송하고 있습니다. 반송이 어려운 선물에 대해서는 사외에 기증하거나 온라인 사내 경매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얻은 수익 전액은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비윤리 신고	갑질행위 신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상담/신고	윤리달레마 상담
포스코 임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실에 대한 신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포스코 임직원의 부당 지시 및 폭언·폭행 행위에 대한 신고	회사 내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관련 상담 및 신고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윤리적 이슈에 대한 문의

비윤리 조치

포스코는 금품 수수·횡령·성윤리 위반·정보 조작의 4대 비윤리 행위는 ‘무관용 원칙(One Strike Out Rule)’으로 대응하며, 윤리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제보자의 신분 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감사 조직인 정도경영실 임직원은 매년 초 ‘신고자 신분보호 전자서약’을 하는 등 제보자 신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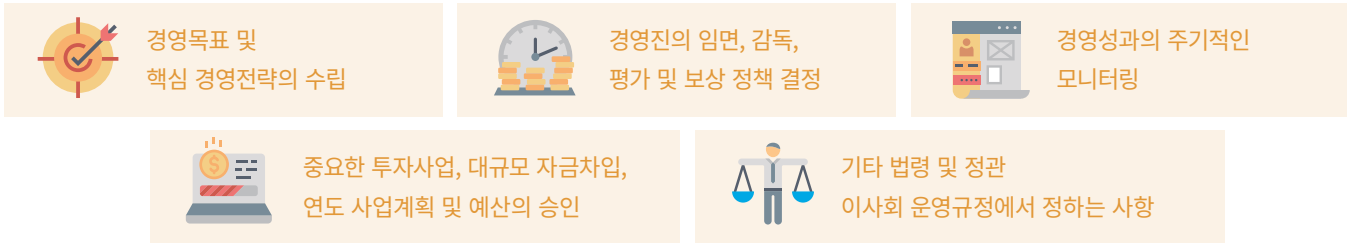
이사회 운영

포스코는 지주사 체제 전환 후 비상장 회사임에도 선진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포스코 정관 제26조(이사의 수)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연 7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총 2개의 전문위원회(ESG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였으며, 두 전문위원회는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산업계,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고 ESG위원회는 환경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였 습니다. 2022년 ESG위원회는 총 6회, 감사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 주요 기능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IV. ESG Communication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포스코는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이해관계자는 투자자, 고객사, 협력사/공급사, 지역사회, 임직원 등으로 각 이해관계자 특성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 러브레터

포스코는 2018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기업시민 러브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투자자, 고객사, 협력사/공급사 등 누구나 본 페이지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회사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외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이니셔티브 참여

포스코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당사의 실행의지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세계철강협회 ‘Sustainability Champion’

세계철강협회는 2018년부터 매년 140여 개의 회원사 중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Sustainability Champion으로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선정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헌장의 9가지 원칙 준수, 소재·공정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ESG 경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부터 2년 연속 Sustainability Champion으로 선정되었습니다.



ResponsibleSteel 사업장 인증 획득

2022년 10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ResponsibleSteel 사업장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ResponsibleSteel은 철강산업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로 사업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하는 370개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관리, 안전·보건, 인권, 지역사회,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스코(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ResponsibleSteel 사업장 인증서

Cover Story

기업시민보고서 하이라이트의 표지는 ‘무한히 재활용되는 친환경 소재로서의 철’을 표현한 2022 포스코 기업시민보고서의 표지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포스코는 친환경차, 풍력발전기,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친환경 산업 제품을 위한 철강재를 생산합니다. 이와 같은 포스코 대표 제품들의 실루엣 안에 철 스크랩을 담아 사용 후 스크랩으로 회수되어 다시 사용되는 철의 특성을 표현했습니다.

제작총괄 : 기업시민실 ESG그룹

발간일 : 2023년 9월

문의 : sustainability@posco.com



2022 포스코
기업시민보고서



그린스틸로 세상에 가치를 더합니다
Green Tomorrow, ith POSCO